



尙古書院(상고서원)

[sanggoedu.modoo.at](http://sanggoedu.modoo.at)

# 고문자학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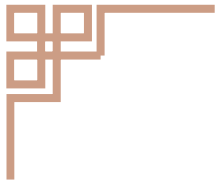
尙  
古  
書  
院

조용준

(前) 중국 인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제5강

## 갑골문 소개 1



# 갑골문 (약 3500년 전)



32384

商나라의 甲骨文과 拓本

## 갑골문 소개

- 1899년 淸나라 光緒 25년에 지금의 河南省 安陽市 殷墟 小屯村에서 발견되었는데, 北京에서 國子監의 祭酒를 맡고 있던 山東省 福山人인 王懿榮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되었음.
- 甲骨文字는 거북의 배딱지, 등딱지 및 소의 어깨뼈에 칼로 글자를 새긴 중국의 고대문자로, 현재까지 총 13萬片의 甲骨이 발견되었음.
- 甲骨文字는 모두 4000여 字 정도되는데, 판독이 가능한 글자는 대략 1800여 字 정도이고, 그중에서 학계에 공인된 글자는 1000여 字 정도에 불과함.

# 갑골문 소개

- 甲骨文은 現存하는 最初의 漢字일 뿐만 아니라, 相當히 完整되고 成熟한 文字體系도 갖추고 있어서, 古文字學과 關聯된 方面의 學術界에 嶄新한 研究課題를 提供하고 있음. 또한 中國의 古代社會를 探索하는 데 있어서, 특히 商代社會의 研究에 있어서 가장 珍貴한 資料임.
- 甲骨學은 甲骨文字와 關連된 若干의 有關事項을 연구하는 學科로써, 文字, 文例, 文法, 卜辭, 斷代研究, 宗法制度, 天文, 曆法, 宗教信仰, 疾病과 醫藥, 政治, 官制, 農業, 狩獵, 征伐, 工藝, 交通 등을 포괄하는데, 모두 殷商史와 關聯된 研究題目임.

## 갑골사당(甲骨四堂)

- 羅振玉(1866年~1940年): 號는 雪堂이고 浙江省 上虞人인데, 最初로 甲骨文의 出土地를 探知하였고, 또한 그곳이 ‘武乙之都’ 임을 考證해냈음. 著書에는 『殷虛書契 前編 八卷』 (全四冊), 『三代 吉金文存』 (全三冊) 등이 있음.
- 王國維(1877年~1927年): 號는 觀堂이고 浙江省 海寧人인데, 1917년에 쓴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는 司馬遷의 『史記』가 信史임을 證明해냈음. 古文字學과 古代史를 함께 研究하면서 歷史記錄과 相互對照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重要的 研究方法인 ‘二重 證據法’ 을 創造하고 完備하여 學術界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음. 著書에는 『觀堂集林 二十卷』, 『古史新證』 등이 있음.

## 갑골사당(甲骨四堂)

- 郭沫若(1892年~1978年): 字는 鼎堂이고 四川省 樂山人임. 著書에는 『中國 古代社會 研究』, 『卜辭 通纂』, 『甲骨文 合集』 (全十三冊), 『兩周 金文 辭 大系 圖錄考釋』 (全二冊) 등이 있음.
- 董作賓(1895年~1963年): 字는 彥堂이고 河南省 南陽人인데, 일찍이 前 中央研究院 歷史語言 研究所의 通訊員을 역임하였음. 著書에는 『甲骨文 斷代 研究例』, 『甲骨學 六十年』, 『殷曆譜 十四卷』, 『殷虛文字·乙編』 등이 있음.



尙古書院(상고서원)

[sanggoedu.modoo.at](http://sanggoedu.modoo.at)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